

인공언어학연구회 저 2011년 8월 20일 초판

인공언어의 랜드마크

인공언어의 역사에 이름을 새긴 사람들

●인공언어의 랜드마크

여기서는 인공언어를 움직여 온 사건들과 인공언어에 이름을 남겨 온 사람들에게 대해 통시적으로 열거한다. 이 위인들이 이룩한 위업이 인공언어를 움직이고 형성해 왔다.

이 목록에서는 인공언어의 역사를 뒤흔든 랜드마크만 언급하기 때문에 잡다한 사건이나 재탕한 작품에 대해서는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기	사건
12 세기	힐데가르트 폰 빙겐, <i>Lingua Ignota</i> (‘미지의 언어’)
13 세기	라이문두스 룰루스, <i>Ars Magna</i> (‘위대한 기술’)
1638	프랜시스 고드윈, <i>The Man in the Moone</i> (‘달세계의 사람’)
1647	프랜시스 로드워, <i>A Common Writing</i> (‘공통의 문자’)
1661	조지 달가노, <i>Ars signorum</i> (‘기호술’)
1668	존 월킨스, <i>An Essay towards a Real Character, and a Philosophical Language</i> (‘진정한 문자와 철학적 언어를 향한 시론’)
1677	테니스 드 베이라스, ‘세바랍브족 이야기’
1678	라이프니츠, <i>Lingua Generalis</i> (‘일반언어’)
1710	티소 드 파토, ‘잭 마세의 모험여행’
1797	드 미미유(Joseph de Maimieux), <i>pasigraphie</i> (만국표기법)로 일약 시대의 총아가 되다
1827	프랑수와 쉬드르, 솔레솔. 1855 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1 만 프랑의 상금 획득
1855	소토스 오찬도, ‘보편언어의 계획안’
1866	파리 언어학회, 언어의 기원과 보편언어에 관련된 논문을 수리하지 않는 방침을 밝힘
1879	슈라이어, 볼라퓌크. 유명해진 최초의 국제보조어
1887	자멘호프, 에스페란토. 세계 최대의 인공언어
1890	‘히브리어 위원회’ 가 설립되고 벤 예후다가 대표로 취임
1901	쿠체르와 레오, ‘국제적 보조언어를 채택하기 위한 위원회’ 를 발족
1907	쿠체르와 령, ‘새로운 국제어’
1907	<i>Uniono por la Linguo Internaciona Ido</i> , Ido(이도)

1919	영국의 위임통치당국, 히브리어를 팔레스타인의 공용어 중 하나로 선언 현대 히브리어를 인공언어로 간주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공언어로 정의할 수 있다
1930	오그덴, Basic English(베이직 잉글리시)
1951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 Association, Interlingua(인터링구아)
1954	틀킨, ‘반지의 제왕’ . 예술언어가 서서히 꽃피어 가다
1955	제임스 쿡 브라운, Loglan(로글란). 사피어 워프 가설의 조사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참신했다
1975	제임스 놀슨(James Knowlson), Universal Language Schemes in England and France 1600-1800 를 출판
1984	마리나 야겔로(Marina Yaguello), Les Fous du langage, des langues imaginaires et leurs inventeurs 를 출판
1991	세렌 아르바자드 외, arka(아르카). 2011 년에 아프리 오리 자연주의 세계를 가진 아프리 오리 자연주의 인공언어 중 세계에서 제일 심도있게 만들어진 인공언어로서 동 언어를 완성시킴
1995	Microsoft, Windows 95 를 발매. 인공언어의 작업이 종이에서 PC 로 넘어가기 시작
1995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The Search for the Perfect Language 를 출판
00 년대	인터넷 브로드밴드의 보급. 인공언어의 공개가 용이해짐
2004	네리에르, globish(글로비슈). 일단은 국제보조어로 분류해 둬
2005	세렌 아르바자드, 웹사이트 ‘신생인공언어론’ 을 시작. 인공언어의 제작법과 인공언어 자체에 대한 해설을 국내 최초로 실시하여 계몽하다
2009	에리카 오크렌트, In the Land of Invented Languages 를 출판
2010	마크 로젠펠더, The Language Construction Kit 를 출판. 언어학의 기초부터 설명하면서 인공언어 제작법을 지남. 단 언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와 풍토의 제작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언어도 지구와 다른 무대인데도 지구의 언어를 바탕으로 한 아포스테리 오리 언어라는 모순을 품은 등 조예가 얕다
2011	세렌 아르바자드, 인공언어학연구회를 발족. 인공언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다
2011	세렌 아르바자드, ‘시온의 서’ 를 출판. 이세계에서 언어를 제로에서부터 배워나간다는 리얼리티를 추구한 세계 최초의 판타지 소설로, 예술언어의 역사상 큰 이정표가 되었다
2011	세렌 아르바자드, ‘인공언어학 · 아르카’ 를 출판. 인공언어학이 제창되고, 아르카가 출판된 인공언어가 되었으며, 전문 아르카 소설 ‘유메오리’ 가 수록되어 출판되었다.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제로에서부터 만들어진 인공언어가 등장하고 출판된 것은 세계 최초의 쾌거이다